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9.28~10.7)

1. 일본의 ‘2019년 방위백서’ 관련

□ [주요 언론 동향]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9월 27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9년 방위백서’에서 한국의 안보 협력 순위가 전년 대비 떨어졌다며, 이는 양국의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되면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1)]

o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2018년 2위에서 올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세안에 이어 4위로 순위가 하락함.

o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최근 한국이 수차례 양국 관계를 훼손한 데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측의 대응(‘보이콧 재팬’)을 비판하는 한편, 계속해서 한국의 적절한 호응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전함.

o 한국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백서의 내용에 대해 즉각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하여 엄중한 항의의 뜻을 표함.
  *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방위백서’에 표기

- 참고소식(参考消息)은 올해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는 약화된 한일 안보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한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강화된 협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도함.[2)]

o 한국의 안보 협력 순위가 4위로 떨어진 것에 대해, 한국 해군의 초계기 레이더 문제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언급은 감소한 반면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언급 부분은 늘어났다고 인용 보도(日本经济新闻)

---

1) 「从日《防卫白皮书》看日韩争端：关系恶化 难有突破口」, 『中国新闻网』(2019. 9. 28)
2) 「日新版防卫白皮书调整安保合作重点：弱化日韩防务关系 关注尖端技术」, 『参考消息』(2019. 9. 29)

2. 한일 분쟁 관련

□ [주요 업계 동향]

- 중관촌재선(中关村在线)은 한·일의 정치적 대립으로 중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특히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 입장에서 삼성은 조만간 추월해야 할 대상일 것이라고 일본 매체를 인용 보도[3)]

o 일본 반도체 생산설비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 반도체 공장(1조 엔 규모)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며, 중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양산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추세가 이어진다면 액정 디스플레이에 이어 반도체까지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업계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인용 보도.(日本经济新闻)

o 한·일 분쟁에 따른 장벽은 반도체 원자재, 설비, 최종제품 등 각 분야에서 주도권을 추구하는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한국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경기 침체 속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간 중국 반도체 업계의 무기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보도

- 금십수거(金十数据)는 한·일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의 여파가 자동차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수출 제한을 우려해 최대 3개월분의 재고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도[4)]

o 자동차 산업은 양국 경제의 중요한 분야로서 수출 제한이 가해진다면 양국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

*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對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701억 엔, 수입액은 785억 엔임.

o 한·일 양국분쟁이 반도체에서 자동차 분야로 확대된다면 중국 자동차 부품 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

3) 「三星即将被超越？日韩对立可能是根本原因」, 『中关村在线』(2019. 10. 5)
4) 「日韩争端还没消停！日本汽车在韩国销量跌60%, 中国企业获利好？」, 『金十数据』(2019. 10. 7)